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2. 2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새만금에 연구용으로 설치된 수상태양광 패널에 소금이 달라붙어 있고, 부식 흔적이 나타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(2.22일자 조선일보 「수면 위 떠오른 새만금 태양광 부식 문제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2.22일자에 보도된 새만금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소금이 달라붙고, 부식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
 - 태양광 설비에서 기사 중 사진과 같은 소금과 부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, 눈과 얼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
- ◇ 조선일보 2.22일자 <수면 위 떠오른 새만금 태양광 부식 문제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2.20일 오전, 새만금호에 연구용으로 설치된 수상태양광 패널 곳곳에 마치 눈이 내린 듯 하얀 소금 결정이 달라붙어 있었고, 부식된 흔적이 나타남
 - 태양광 패널은 해풍을 계속 맞거나, 바닷물에 젖었다가 건조되는 과정을 반복하면 쉽게 부식될 수 있음
- 새만금호는 하루 두 번 수문을 열어 호수 물이 바닷물과 뒤섞이고, 염분이 다량 함유된 물이 매일 패널을 적시고 있으므로 수상태양광의 입지로는 적절치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위 기사 관련, 보도 당일인 2.22일 오전 11:00시경 현장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한 결과, 태양광 패널에 기사 중 사진에서 보여지는 소금이나 부식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음

* 새만금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염해에 관한 제품 국제 성능시험(IEC 61701)을 통과한 모듈로 염분에 의한 부식 가능성은 낮음

- 보도된 사진의 하얀 결정은 눈과 얼음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

< 보도된 사진과 보도 당일의 현장 방문 사진 비교 >



조선일보 기사 사진(2.20일 오전)



사업수행기관 현장방문 사진(2.22일 오전)

- 또한, 현장 방문시 확인된 태양광 설비의 표면 오염은 육상, 수상 등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이 대기 중의 먼지 등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
- 한편, 새만금에 설치된 수상형 태양광 실증설비는 해풍과 해수에 보다 잘 견디는 태양광 모듈과 부유체를 실증하는 것이 목적임
 - 이에 따라, 일반 태양광 설비보다 고염, 고내구성을 갖도록 개발된 제품이 설치되었으며, 사업기간 중 관련 데이터를 수집, 분석하고 있음
- 산업부와 사업추진기관인 에너지공단, 에너지기술평가원, 산업기술시험원 등은 동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, 향후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※ 문의: 김용태 재생에너지산업과장(044-203-5370) / 신동훈 주무관(5374)